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 프로젝트 2017-02

#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최옥금 · 이은영



## 머 리 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 노인 빈곤 문제의 완화 및 노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급여액이 최대 2배 상향되었었다. 이렇게 급여액이 2배 상향된 점과 관련되어 기초연금 급여액 조정과 관련된 쟁점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급여액을 국민연금 A값의 5%에 맞게 조정한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연금법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기초연금 급여가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노인 빈곤이나 수급자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초연금법 9조에 규정된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조항으로, 여기에서는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 A값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시행 이후 첫 번째 급여적정성 평가가 시행되는 2018년으로 예정된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노인빈곤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 시행 전·후 노인의 경제상황 분석을 이들의 가계수지 변화 및 빈곤과 소득불평등 분석 및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은영 전문연구원이 함께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와 연구원의 연금제도연구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향후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 시 복지부와 공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7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이 용 하

##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b>I. 서론 .....</b>	<b>9</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내용 및 목차구성 .....	11
제3절 분석방법 .....	12
가. 빈곤의 개념 정의 .....	12
나. 빈곤의 측정 .....	14
제4절 분석자료 .....	16
<b>II.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 .....</b>	<b>19</b>
제1절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분석 .....	19
가.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 변화 .....	19
나. 소득 5분위별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 변화 .....	23
제2절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분석 .....	2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30
<b>III.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 .....</b>	<b>33</b>
제1절 노인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변화 .....	34
가.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	34
나.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 .....	39
제2절 노인 특성별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변화 .....	42
가. 노인 특성별 빈곤율 변화 분석 .....	42
나. 노인 특성별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 .....	5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56

IV.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59
제1절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59
가.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	59
나.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64
제2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67
가. 기초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	67
나. 기초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7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84
 V. 결론 .....	 87
 참고문헌 .....	 91

## 표 차례

〈표 II-1〉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증감률 .....	20
〈표 II-2〉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및 증감률 .....	21
〈표 II-3〉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지출 동향 .....	22
〈표 II-4〉 소득 5분위별 기초자료 .....	24
〈표 II-5〉 소득 5분위별 소득 .....	25
〈표 II-6〉 소득 및 소비지출 지표 .....	26
〈표 II-7〉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증감률 .....	28
〈표 II-8〉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및 증감률 .....	29
〈표 II-9〉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 동향 .....	30
〈표 III-1〉 노인가구의 특성 분류 .....	33
〈표 III-2〉 상대빈곤율 빈곤선 .....	34
〈표 III-3〉 2013~2016년 상대빈곤율 추이 .....	35
〈표 III-4〉 정부 정책 효과 (연간) .....	36
〈표 III-5〉 가구원수 별 절대빈곤선 기준 금액 .....	37
〈표 III-6〉 2013~2016년 절대빈곤율 추이 .....	37
〈표 III-7〉 2013~2016년 노인의 빈곤갭 비율 .....	38
〈표 III-8〉 2013~2016년 5분위 분배율 .....	40
〈표 III-9〉 2013~2016년 노인의 지니계수 .....	42
〈표 III-10〉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	44
〈표 III-11〉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	45
〈표 III-12〉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절대빈곤율 추이 .....	47
〈표 III-13〉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절대빈곤율 추이 .....	48
〈표 III-14〉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빈곤갭 비율 추이 .....	49
〈표 III-15〉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빈곤갭 비율 추이 .....	51
〈표 III-16〉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5분위 분배율 추이 .....	52

〈표 Ⅲ-17〉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5분위 분배율 추이	53
〈표 Ⅲ-18〉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지니계수 추이	55
〈표 Ⅲ-19〉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지니계수 추이	56
〈표 Ⅳ-1〉 연도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60
〈표 Ⅳ-2〉 분기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63
〈표 Ⅳ-3〉 연도별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65
〈표 Ⅳ-4〉 분기별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66
〈표 Ⅳ-5〉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	68
〈표 Ⅳ-6〉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	70
〈표 Ⅳ-7〉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절대빈곤율 완화 효과	72
〈표 Ⅳ-8〉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절대빈곤율 완화 효과	74
〈표 Ⅳ-9〉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	75
〈표 Ⅳ-10〉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	77
〈표 Ⅳ-11〉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5분위 배율 완화 효과	78
〈표 Ⅳ-12〉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5분위 배율 완화 효과	80
〈표 Ⅳ-13〉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지니계수 완화 효과	81
〈표 Ⅳ-14〉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지니계수 완화 효과	83

# 요 약

## I. 서 론

###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완화 및 노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초연금법에는 물가상승률로 조정하는 기초연금 급여가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노인 빈곤이나 수급자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조항이 있음
  - 여기에서는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 또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시행 이후 첫 번째 급여적정성 평가가 시행되는 2018년으로 예정된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노인빈곤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우선 노인의 경제상황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가구 가계 수지 변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 □ 주요내용

-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가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함
- 노인의 상대·절대빈곤율 변화 및 빈곤갭과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들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함
-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초연금액을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빈곤율 감소 효과 및 빈곤갭과 지니계수 감소 효과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기초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노인가구의 특성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봄

## II.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

### □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분석

- (분석자료 및 방법)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분석하여 2013~2016년에 걸쳐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함
  - 이때 분석대상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이며,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과 가구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소득 평균 및 소득별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

-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변화)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소득은 2014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 28.5%, 31.5%, 33.2%로 증가함
    - 한편 2016년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감소는 2016년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경상소득이 2015년과 비교할 때 23.2%가 감소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또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2015년에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4년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 증가한 기초연금 급여액 증가로 이후 2015년 소비지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유추할 수 있음
  - (소득 5분위별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 변화) 2014년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를 살펴보면, 1분위와 2분위, 특히 2분위에서 이전소득 증가율이 높았으며 2015년의 경우에는 1분위에서 이전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16년에는 1분위에서 이전소득이 오히려 감소했고 2분위 증가율도 이전 년도인 2014년, 2015년과 비교할 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분석
- (분석자료 및 방법)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분석하여 2013~2016년에 걸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 및 지출 변화가 어떤지 분석함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 4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 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2014년에는 3.7%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13.6% 증가하였고, 전체 소득원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이 2014년 25.9%, 2015년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5년 전년 대비 8.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0.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Ⅲ.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

- 분석방법
  -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율, 빈곤갭, 소득 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2013~2016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분석함
  - 특히 이를 살펴볼 때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성별과 연령대(60대, 70대 80대 이상), 거주지역(동부와 읍면부), 또한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함
- 노인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변화
  -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연간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중위 50% 기준 빈곤율도 2013년 47.5%에서 2014년 47.2%, 2015년 44.7%로 각각 0.3%p, 2.5%p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7%로 2.0%p 증가함
    -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산출

한 빈곤율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50%를 빈곤선으로 산출한 빈곤율을 차감한 것을 정부정책 효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부정책 효과는 2013년 13.1%p, 2014년 14.9%p, 2015년 18.6%p, 2016년 19.0%p로 나타나, 정부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절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듬해인 2015년 28.8%로 전년 대비 약 4.4%p 감소하였으나, 2016년 33.1%로 전년 대비 4.3%p 증가,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빈곤율 추세와 유사
-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빈곤갭 비율은 46.2%였으나, 2014년 42.7%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39.8%까지 감소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을 기점으로 빈곤갭 비율 개선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
-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분배율은 10.5배였으나, 2014년 8.6배로 감소하였고, 2015년 다시 7.4배로 떨어져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2016년 5분위 분배율이 다시 7.8배로 높아져 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2015년과 비교할 때 높아짐
  - 노인의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지니계수는 0.420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며, 이후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노인의 연간 지니계수는 0.393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0.375로 감소하여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2016년 다시 0.38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6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 노인 특성별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변화
  -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특성별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부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빈곤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며 빈곤갭 비율의 경우에도 빈곤율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남
  - 소득불평등 추이의 경우에도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불평등이 높았고, 노인단독, 비노인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기타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 도입 이후 소득불평등은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가구들의 경우 빈곤율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 IV.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일반적으로 빈곤지표 산출 시 활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수치와 가처분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설정한 후 두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 차이를 비교하여 기초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파악
  -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대빈곤율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절대빈곤율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약간 감소함

- 반면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빈곤갭 비율의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봤을 때 기초연금은 빈곤율 완화 효과보다 빈곤갭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16년에 감소하지만 빈곤갭 감소 효과는 2016년에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한편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를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V. 결론

- 본 연구는 2018년에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 변화 및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또한 다양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조정안에 따른 노인빈곤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향후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사전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수행됨
-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 및 지출 증가와 같은 가계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상대빈곤율 및 절대빈곤율, 빈곤갭 감소 및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으며,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 효과,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6년까지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 외에 정책적으로 제도의 목표 대상을 별도로 상정하지는 않으나 분석결과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빈

## 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곤핍,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사람들의 특성은 고연령대, 여성, 노인 단독가구 등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나,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율성이 높다는 점도 제시

-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2015년 이후에는 노인의 상대·절대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빈곤갭,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금 급여액 상향이나 급여 연동방법의 변화와 같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의 제한점 및 한계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농어가 가구가 제외되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빈곤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활용 시 이러한 한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 1.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심각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sup>1)</sup> 문제의 완화 및 노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급여액이 최대 2배 상향되었는데 이는 기존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급여 인상 스케줄을 약 15년 앞당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 해소 및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급여액이 2배 상향된 점과 관련되어 기초연금 급여액 조정과 관련된 쟁점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급여액을 국민연금 A값의 5%에 맞게 조정할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sup> 다만 기초연금법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기초연금 급여가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노인 빈곤이나 수급자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규정을

---

1)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정의하는 중위소득 50% 미만 비중을 빈곤으로 정의할 때 47.4%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노인빈곤율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42.8%→43.6%→44.1%→45.9%→46.3%→47.6%→47.2%→48.1%)하다가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2015년 44.8%로 2.6%p 감소하고 2016년 다시 약간 증가하여 46.5%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준연금액은 200,000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물가상승률 1.3%를 적용하여 202,600원, 2016년에는 물가상승률 0.7%를 인상한 204,010원, 2017년에는 물가상승률 1.0%를 적용한 206,050원으로 상향되었다. 만약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이 아닌 A값 상승률로 조정했을 경우 2015년에는 204,470원, 2016년에는 210,540원, 2017년에는 217,640원으로 상향되었을 것이다.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초연금법 9조에 규정된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조항이다. 여기에서는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시행 이후 첫 번째 급여적정성 평가가 시행되는 2018년으로 예정된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한 노인빈곤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경제상황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의 변화, 또한 기초연금의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 시행 전·후 노인의 경제상황 분석을 이들의 가계수지 변화 및 빈곤과 소득불평등 분석 및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분석, 그리고 다양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조정안에 따라 노인 빈곤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기초연금 시행 이후 노인 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 있으며, 2015년부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노인가구의 소득·지출 변화 및 빈곤 및 소득분배 지표 변화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기초연금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인빈곤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및 빈곤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분석 및 기준

연금액 조정안별 시뮬레이션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정리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곧 선행연구들의 경우 기초연금의 적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 변화 및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 변화 및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사전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목차구성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가 어떤지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노인의 상대·절대빈곤율 변화 및 빈곤갭과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들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IV장에서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빈곤율 감소 효과 및 빈곤갭과 지니계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기초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노인가구의 특성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

계 검토를 통해 관련 후속연구에 주는 제언을 정리하겠다.

### 제3절 분석방법

본 고에서는 주로 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분석할 예정이므로 이를 분석할 때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빈곤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슈는 빈곤의 개념정의(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와 빈곤의 분석단위(가구와 개인), 가구 또는 개인의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소득과 자산 혹은 지출)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Barr, 1998, 최현수 외, 2016).

#### 가. 빈곤의 개념 정의

우선 빈곤의 개념정의는 접근방식에 따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지만 정책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한다. 경제적 빈곤은 소득과 재산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상태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욕구는 주로 물질적 욕구, 그 가운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수준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할 때 빈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주로 정의<sup>3)</sup>되는데,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인 최저한도보다 적게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측정은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물량방식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전체 소비항목에 대해 최저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2015년까지 측정·발표했던 최저생계비가 전물량방식으로 측정한 것이다. 한

---

3)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할 때 주관적 빈곤도 포함되는데, 주관적 빈곤의 개념은 정책적 효과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편 반물량방식은 음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선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앵겔지수라고도 한다. 이는 미국의 빈곤선 산출 방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선으로 간주하여 절대빈곤율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2015년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면서 더 이상 최저생계비를 계속하고 있지 않아 절대빈곤율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3년에 한번 실제측하였고 실제측하지 않는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2015년까지 산출한 절대빈곤율과의 추세 비교를 위해서는 기존 최저생계비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16년 절대빈곤선의 경우 2015년 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수치를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한 경우 이를 빈곤으로 판단하므로 상대적 박탈 및 불평등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연구자에 따라 평균·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활용하기도 하고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가장 낮은 일정 비율(하위 10% 혹은 20%)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평균소득의 경우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OECD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다. 한편 OECD 등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 중위소득의 30%, 40%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빈곤율 산출 및 제시를 위해 이 기준도 활용할 것이다.

## 나. 빈곤의 측정

빈곤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에도, 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쟁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빈곤 측정의 기준을 자산으로 할 것인지, 소득으로 할 것인지, 지출로 할 것인지를 문제가 있으며, 측정의 단위를 주, 월, 연단위로 할 것인지, 또한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문제도 있다.

빈곤 측정의 기준은 주로 소득을 활용한다. 자산의 경우 빈곤층의 경우 주택을 제외하면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의 경우 후생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득 자료가 더 정확하고 측정이 편리할 뿐 아니라 소득이 소비보다 개인의 선호에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을 측정하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주나 월 단위 측정의 경우 일시적인 상황(혹은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간 이루어진 소득측정이 더 안정적이므로 주로 연 단위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측정할 때 개인, 가족, 혹은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sup>4)</sup>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이나 가구를 단위로 분석하는데, 가족이나 가구의 구성과 수의 차이는 가구균등화 지수를 활용하여 조정하게 된다.

한편, 빈곤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빈곤율의 경우 빈곤선 소득 미만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 전체 인구 숫자로 나눈 값으로, 빈곤층의 수(규모)만 고려하고 빈곤의 정도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절대빈곤율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999~2015) 미만인 가구(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40%, 50%, 60%)미만인 가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빈곤갭은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원)들의 소득과 빈곤선 간의 차이로, 빈곤한 사람

4) 이는 가족이나 가구 내에서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경우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들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나타낸다. 빈곤갭 비율은 빈곤갭의 총합을 전체 가구(원)의 빈곤선 총합으로 나눈 비율로, 전체 빈곤층이 어느 정도 빈곤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빈곤의 심도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빈곤갭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통계청에서는 평균 빈곤갭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평균 빈곤갭을 활용하고자 한다. 평균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에 대한 상대적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불평등지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하여 살펴볼 것이다. 분배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경계점 및 점유율을 기준으로 분위별 배율을 산출하여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로렌츠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정렬한 인구 비율을 횡축으로 하고, 인구의 누적분포에 따라 향유되는 소득 비율을 종축으로 해서 그려진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평등선과 로렌츠곡선 간 차이의 비율로 계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빈곤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빈곤을 측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빈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되고, 월 소득을 가구별 연간소득으로 재집계한 후 해당 연도를 대표하는 연간 월평균 소득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빈곤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여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빈곤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노인 빈곤율을 활용할 것인데,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에 빈곤한 가구에 속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소득을 활용<sup>5)</sup>할 것인데 소득의

5)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자산을 고려한 빈곤율을

## 16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정의 가운데 가치분소득을 활용할 예정이다. 가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개념이다<sup>6)</sup>. 이후 가치분소득에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였다. 가구균등화 지수의 경우 OECD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활용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varepsilon = 0.5 \Rightarrow \text{SQRT}(\text{가구원수})$ )를 사용하여 균등조정 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빈곤선과 비교하여 빈곤여부를 판단하였다.

종합하면,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측정 하되 노인빈곤율은 개인 단위의 빈곤율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노인가구 빈곤율로 명기하여 산출하였다. 빈곤 지표는 상대빈곤율의 경우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가치분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하고 절대빈곤율은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16년의 경우 201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 적용)를 기준으로 산출하고자 한다. 기타 소득분배지표는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기준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 제4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OECD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검토하고,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석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sup>7)</sup>

---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6) 소득분배지표 작성 시 활용하는 가치분 소득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치분소득 = 경상소득(시장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 공적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등

\*\* 관련지표 :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률

7)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분석자료 외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자료를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와 국

통계청에서 소득 및 빈곤, 분배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소득분배지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그것이다. 소득분배지표조사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결합한 조사로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빈곤율을 산출하고 이 결과를 OECD에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1인가구 포함)으로, 농(림)가, 어가,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약 9,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모든 비목에 대해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조사하여 소득이 가장 정확한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급여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패널자료로 소득분배지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하지 않는 자산항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데이터로 선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 도입과 시행이 수급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정확한 급여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 시에는 기초연금이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및 기초연금의 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는 조사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초연금 도입 이후의 이러한 변화를 연단위가 아닌 분기별로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소득분배지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

---

민연금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의 경우 소득자료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들과 비교할 때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노인(혹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율 산출이 어렵고 조사시점이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우 연단위로만 제공되므로 분기별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분석을 위한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한 것으로 소득분배지표조사의 경우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에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현 시점에서 분석 가능한 소득 관련 조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기초연금 시행 이후 2016년까지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II.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

### 제1절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분석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분석하여 2013년 ~ 2016년에 걸쳐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대상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이며,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과 가구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소득 평균 및 소득별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 가.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 변화

우선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의 총소득은 2014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대상이 노인가구주 가구인 만큼 전체 소득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같은 시장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으로, 2013년 전체 소득 가운데 38.9%였으나 2014년 41.7%, 2015년 42.9%로 증가했다가 2016년 4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평균액이 429천원에서 2014년 490천원으로, 2015년 572천원으로, 2016년에는 589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 28.5%, 31.5%, 33.2%로 증가한

## 2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6.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6년에 하락하여 2015년 대비 2.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15년까지 노인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 및 총소득의 증가는 2014년 기초연금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1〉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증감률

(단위 : 천원, %)

구분	금 액 (구성비)				증감률(전년대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소득	1684.6 (100.0)	1718.4 (100.0)	1819.8 (100.0)	1771.4 (100.0)	2.0	5.9	-2.7
경상소득	1553.3 (92.2)	1591.8 (92.6)	1682.2 (92.4)	1665.6 (94.0)	2.5	5.7	-1.0
근로소득	542.6 (32.2)	518.1 (30.2)	540.1 (29.7)	513.4 (29.0)	-4.5	4.2	-4.9
사업소득	308.6 (18.3)	324.5 (18.9)	332.2 (18.3)	333.4 (18.8)	5.2	2.4	0.4
재산소득	47.6 (2.8)	31.8 (1.9)	29.9 (1.6)	27.7 (1.6)	-33.2	-6.0	-7.3
이전소득	654.5 (38.9)	717.4 (41.7)	780.0 (42.9)	791.1 (44.7)	9.6	8.7	1.4
공적이전소득	428.9 (25.5)	490.0 (28.5)	572.4 (31.5)	588.6 (33.2)	14.2	16.8	2.8
사적이전소득	225.6 (13.4)	227.3 (13.2)	207.7 (11.4)	202.5 (11.4)	0.8	-8.6	-2.5
비경상소득	131.3 (7.8)	126.6 (7.4)	137.7 (7.6)	105.8 (6.0)	-3.6	8.8	-23.2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2013년 2,243가구, 2014년 2,341가구, 2015년 2,497가구, 2016년 2,384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 II.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 21

한편 2016년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감소는 비정상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1>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2016년 노인가구주 가구의 비정상소득은 2015년과 비교할 때 23.2%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II-2>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및 증감률

(단위 : 천원, %)

구 분	금 액 (구성비)				증감률(전년대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비지출	1086.5	1081.7	1133.3	1092.1 (100.0)	-0.4	4.8	-3.6
식료품·비주류음료	245.0	240.1	243.6	237.0 (21.7)	-2.0	1.4	-2.7
주류·담배	14.3	14.1	15.1	16.3 (1.5)	-1.6	7.2	7.5
의류·신발	53.0	49.9	53.6	50.1 (4.6)	-5.9	7.4	-6.7
주거수도·광열	202.2	199.1	210.6	212.3 (19.4)	-1.5	5.7	0.8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46.9	49.8	55.7	54.7 (5.0)	6.2	11.9	-1.8
보건	144.3	143.2	151.1	143.9 (13.2)	-0.7	5.5	-4.7
교통	90.7	95.8	104.8	81.5 (7.5)	5.6	9.4	-22.3
통신	47.5	45.1	47.7	47.6 (4.4)	-4.9	5.7	-0.3
오락·문화	52.8	50.6	54.3	55.3 (5.1)	-4.3	7.3	2.0
교육	15.3	11.7	10.4	10.6 (1.0)	-23.7	-10.8	1.3
음식·숙박	96.0	98.0	103.4	104.2 (9.5)	2.0	5.5	0.8
기타 상품서비스	78.3	84.3	83.0	78.6 (7.2)	7.6	-1.5	-5.2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2013년 2,243가구, 2014년 2,341가구, 2015년 2,497가구, 2016년 2,384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 2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그렇다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2015년까지의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졌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2015년에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부분은 가정용품과 가사서비스로, 2014년에 비해 11.9%가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통비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에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2015년과 비교할 때 약 3.6%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소비지출의 증가와 하락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 증가한 기초연금 급여액 증가로 이후 2015년 소비지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유추할 수 있다.

〈표 II-3〉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지출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금액)	증감률 (전년대비)	2015년 (금액)	증감률 (전년대비)	2016년 (금액)	증감률 (전년대비)
처분가능소득	1422.1	2.4	1516.0	6.6	1493.0	-1.5
흑자액	340.5	12.6	382.7	12.4	400.9	4.8
평균소비성향	76.1	-2.8	74.8	-1.7	73.1	-2.1

주 1: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2013년 2,243가구, 2014년 2,341가구, 2015년 2,497가구, 2016년 2,384가구

주 2: 처분가능소득: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다음으로 이러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몇 가지 지표로 나타낸 것은 〈표 II-3〉과 같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2014년 1,422천원, 2015년 1,516천원, 2016년 1,493

천원으로 2015년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나 2016년에는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의 경우 2015년에는 382.7천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400.9천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출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비율로 나타낸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76.1%, 2015년 74.8%, 2016년 73.1%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 나. 소득 5분위별 노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 변화

앞선 분석에서는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소득분위에 따라 소득과 소비지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는 <표 II-4>와 같다.

다음으로 소득 5분위에 따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종류별 평균 금액 및 증감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소득 및 이전소득의 증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014년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를 살펴보면, 1분위와 2분위, 특히 2분위에서 이전소득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는 1분위에서 이전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2016년에는 1분위에서 이전소득이 오히려 감소했고 2분위 증가율도 이전 년도인 2014·2015년과 비교할 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1분위와 2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6년에는 1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소득 분위별 기초분석 결과에서 기초연금 수급률이

## 24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1·2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것이 이들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 소득 5분위별 기초자료

(단위: 천원, 세, %)

구분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2014년	소득 경계값	572.6	925.6	1436.5	2673.0	11395.0
	가구원수	1.18	1.34	1.60	2.05	2.59
	가구주연령	75.7	74.7	73.1	71.4	70.4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84.0	86.5	79.1	50.0	27.9
2015년	소득 경계값	630.0	998.1	1580.8	2646.7	23384.4
	가구원수	1.15	1.32	1.60	1.93	2.60
	가구주연령	76.2	74.7	73.3	71.7	70.6
	기초연금 수급률	88.2	89.0	80.9	59.9	34.7
2016년	소득 경계값	632.9	979.9	1531.4	2624.2	32533.7
	가구원수	1.19	1.34	1.60	1.91	2.48
	가구주연령	76.2	75.0	73.6	71.9	70.6
	기초연금 수급률	83.2	90.9	77.1	55.8	42.5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2013년 2,243가구, 2014년 2,341가구, 2015년 2,497가구, 2016년 2,384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 II.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 25

〈표 II-5〉 소득 5분위별 소득

(단위 : 천원, %)

2014년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소득	391.0	12.4	745.6	8.2	1160.9	3.2	1959.8	4.9	4328.1	-1.4
경상소득	341.8	17.8	653.9	8.7	1032.1	3.0	1820.1	5.9	4105.1	-1.1
근로소득	34.6	33.9	63.0	-21.9	204.6	9.9	640.5	13.3	1645.5	-11.2
사업소득	16.4	-24.9	63.7	-22.6	148.6	1.5	351.2	-6.8	1041.2	13.8
재산소득	6.6	98.6	3.6	-54.8	19.1	-12.3	33.7	-28.4	95.7	-39.3
이전소득	284.1	18.8	523.6	21.7	659.8	1.9	794.7	9.0	1322.7	8.1
공적	204.1	22.7	330.3	29.2	370.9	18.5	562.6	24.3	981.0	2.7
사적	80.0	10.0	193.3	10.7	288.9	-13.6	232.2	-16.0	341.7	27.2
비경상	49.3	-14.8	91.7	4.6	128.8	4.9	139.8	-6.6	223.1	-6.3
2015년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소득	466.4	19.3	800.8	7.4	1246.4	7.4	2070.2	5.6	4510.5	4.2
경상소득	410.7	20.2	716.0	9.5	1137.9	10.2	1922.9	5.6	4218.6	2.8
근로소득	30.3	-12.6	82.8	31.4	254.5	24.4	573.8	-10.4	1756.5	6.7
사업소득	13.2	-20.0	62.6	-1.7	137.0	-7.8	410.7	17.0	1036.3	-0.5
재산소득	5.1	-22.7	4.3	18.4	13.5	-29.5	43.8	29.8	82.6	-13.7
이전소득	362.2	27.5	566.2	8.1	732.9	11.1	894.6	12.6	1343.3	1.6
공적	281.0	37.7	381.2	15.4	462.5	24.7	669.9	19.1	1,066.4	8.7
사적	81.2	1.5	185.0	-4.3	270.4	-6.4	224.7	-3.2	276.9	-19.0
비경상	55.6	12.9	84.8	-7.5	108.5	-15.7	147.3	5.4	291.8	30.8
2016년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소득	433.3	-7.1	800.5	0.0	1229.9	-1.3	2024.8	-2.2	4354.1	-3.5
경상소득	389.1	-5.3	727.8	1.7	1131.8	-0.5	1924.9	0.1	4141.0	-1.8
근로소득	22.0	-27.2	82.7	-0.2	219.7	-13.7	571.7	-0.4	1664.5	-5.2
사업소득	17.7	34.2	49.3	-21.3	125.1	-8.7	417.2	1.6	1054.1	1.7
재산소득	9.6	88.4	10.8	150.8	13.8	2.2	30.7	-29.8	73.3	-11.2
이전소득	339.8	-6.2	585.1	3.3	773.2	5.5	905.3	1.2	1349.0	0.4
공적	271.6	-3.4	391.1	2.6	502.3	8.6	655.0	-2.2	1,119.9	5.0
사적	68.2	-16.0	194.0	4.8	270.9	0.2	250.3	11.4	229.1	-17.3
비경상	44.2	-20.5	72.7	-14.3	98.1	-9.6	100.0	-32.1	213.1	-27.0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2013년 2,243가구, 2014년 2,341가구, 2015년 2,497가구, 2016년 2,384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 26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I-6〉 소득 및 소비지출 지표

(단위 : 천원, %)

구분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2014년	처분가능소득	309.0	17.5	625.4	8.8	973.1	3.6	1623.4	5.6	3574.2	-1.4
	흑자액	-195.2	13.4	-28.2	61.0	111.2	181.2	363.1	35.0	1448.6	-3.4
	흑자율	-63.2	22.5	-4.5	8.1	11.4	7.2	22.4	4.9	40.5	-0.8
2015년	평균소비성향	163.2	-22.5	104.5	-8.1	88.6	-7.2	77.6	-4.9	59.5	0.8
	처분가능소득	387.1	25.2	683.9	9.4	1063.3	9.3	1748.7	7.7	3693.0	3.3
	흑자액	-114.4	41.4	20.1	171.2	166.4	49.7	422.5	16.4	1417.0	-2.2
2016년	흑자율	-29.5	33.6	2.9	7.5	15.7	4.2	24.2	1.8	38.4	-2.2
	평균소비성향	129.5	-33.6	97.1	-7.5	84.3	-4.2	75.8	-1.8	61.6	2.2
	처분가능소득	347.1	-10.3	683.1	-0.1	1043.3	-1.9	1712.2	-2.1	3667.3	-0.7
	흑자액	-175.9	-53.8	17.0	-15.2	152.8	-8.2	442.6	4.8	1561.2	10.2
	흑자율	-50.7	-21.1	2.5	-0.4	14.6	-1.0	25.8	1.7	42.6	4.2
	평균소비성향	150.7	21.1	97.5	0.4	85.4	1.0	74.2	-1.7	57.4	-4.2

주 1: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2013년 2,243가구, 2014년 2,341가구, 2015년 2,497가구, 2016년 2,384가구

주 2: 처분가능소득: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 100,  
 흑자율: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다음으로 이러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소득 분위별로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II-6〉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15년 소득 I분위 증가율이

25.2%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흑자액 및 흑자율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6년에는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액, 흑자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I분위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6년 지출 증가를 소득 증가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소득 II분위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처분가능소득, 흑자액, 흑자율 모두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모두 감소하여 소득 I분위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와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분석

여기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 및 지출 변화가 어떤지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이들의 소득 및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3.7%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13.6% 증가했는데,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지급되었기 때문에 2014년의 소득 증가율은 높지 않다가 1월부터 지급된 2015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이미 2015년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증가율이 높지 않다.

한편 앞선 노인가구주 대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소득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같은 시장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이 2014년 25.9%, 2015년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고 있으나 2016년 비경상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I-7〉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증감률

(단위 : 천원, %)

구분	금 액 (구성비)				증감률(전년대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소득	1164.8	1208.4	1373.1	1387.2	3.7	13.6	1.0
경상소득	1047.3	1091.5	1241.6	1289.5	4.2	13.7	3.9
근로소득	357.4	347.6	395.8	419.1	-2.7	13.9	5.9
사업소득	150.4	148.0	183.7	177.6	-1.6	24.1	-3.3
재산소득	29.1	15.6	11.3	8.5	-46.3	-27.8	-24.8
이전소득	510.5	580.3	650.8	684.3	13.7	12.2	5.1
공적이전소득	279.3	351.6	438.8	462.9	25.9	24.8	5.5
사적이전소득	231.1	228.7	212.1	221.4	-1.1	-7.3	4.4
비경상소득	117.5	116.9	131.5	97.6	-0.5	12.5	-25.8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5년 전년대비 8.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0.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6년 소비지출이 감소했으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적어도 소비지출이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 2015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부문은 교육으로 2014년에 비해 25.7% 증가했으며, 의류·신발이 18.7%,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8.5%, 음식·숙박이 17.6%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시행이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소비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 II-8〉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및 증감률

(단위 : 천원, %, %p)

구 분	금 액 (구성비)				증감률(전년대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비지출	843.7	849.1	920.3	920.9	0.6	8.4	0.1
식료품·비주류음료	205.8	204.5	212.1	208.0	-0.6	3.7	-1.9
주류·담배	13.2	13.6	15.1	16.5	3.0	10.7	9.1
의류·신발	33.8	31.4	37.3	34.9	-7.0	18.7	-6.3
주거·수도·광열	182.6	187.0	189.7	198.9	2.4	1.5	4.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4.4	36.6	43.4	44.6	6.5	18.5	2.8
보건	118.3	119.0	131.9	126.3	0.6	10.8	-4.2
교통	60.6	60.6	66.3	65.3	0.1	9.3	-1.5
통신	35.7	33.8	37.5	40.8	-5.4	11.1	8.9
오락·문화	32.1	30.7	33.5	37.0	-4.5	9.1	10.5
교육	10.3	7.0	8.8	9.0	-32.4	25.7	2.3
음식·숙박	63.8	66.1	77.7	81.4	3.6	17.6	4.8
기타 상품·서비스	53.1	58.8	67.2	58.2	10.6	14.2	-13.4

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몇 가지 지표로 나타낸 것은 다음 〈표 II-9〉와 같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2014년 1,032천원, 2015년 1,177천원, 2016년 1,207천원으로 2014년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4.1%, 2016년에도 2.5% 증가하였다. 또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의 경우 2014년에는 183.2천원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57.6천원으로 전년 대비 40.6%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286.2천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출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비율로 나타낸 평균소비성향은

### 3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2014년 82.3%, 2015년 78.1%, 2016년 76.3%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표 II-9〉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금액)	증감률 (전년대비)	2015년 (금액)	증감률 (전년대비)	2016년 (금액)	증감률 (전년대비)
처분가능소득	1032.2	4.6	1177.9	14.1	1207.0	2.5
흑자액	183.2	28.1	257.6	40.6	286.2	11.1
평균소비성향	82.3	-3.8	78.1	-5.0	76.3	-2.3

주 1: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로 2013년 2,243가구, 2014년 2,341가구, 2015년 2,497가구, 2016년 2,384가구

주 2: 처분가능소득: 소득 - 비소비지출,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주 가구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변화 및 세부 항목별 증감률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가계수지를 몇 가지 지표로 통해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1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 2015년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반면 소득의 감소는 비정상소득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지출의 경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정용품과 가사서비스 항목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들의 가계수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처분가능소득, 흑자액 모두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균소비성향도 2014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노인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약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증가율이 2015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긴 하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소득 및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의 가계수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처분가능소득, 흑자액 모두 2015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시행을 통해 소득 및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활안정 및 노후소득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Ⅲ.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율, 빈곤갭, 소득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2013~2016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를 살펴볼 때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성별과 연령대(60대, 70대 80대 이상), 거주지역(동부와 읍면부), 또한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다음 <표 Ⅲ-1> 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Ⅲ-1> 노인가구의 특성 분류

구분	정의
노인가구원 포함 가구	가구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단독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단독가구
노인부부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구
비노인배우자 부부	배우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부부가구
자녀동거1(노인가구주)	가구원 가운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이면서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
자녀동거2(자녀가구주)	가구원 가운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이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녀가 가구주인 가구
기타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노인의 부모가 가구원으로 포함된 경우, 조손가구 등이 해당

## 제1절 노인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변화

### 가.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여기에서는 2013~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을 기준으로 중위 가치분소득을 산출하고, 중위 30%, 40%, 50% 빈곤선을 산출하였다. 연도별 빈곤선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I-2> 상대빈곤율 빈곤선

(단위 : 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위 30%	555,394	571,770	589,962	594,904
중위 40%	740,526	762,359	786,616	793,205
중위 50%	925,657	952,949	983,270	991,506

주 : 가구균등화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우선 연간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중위 30% 기준 빈곤율은 2013년 27.6%, 2014년 25.2%, 2015년 21.5%로 2.4%p, 3.7%p씩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6년 23.5%로 2.0%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위 40% 기준 빈곤율도 마찬가지로 2013년 39.1%에서 2014년 37.2%, 2015년 34.7%로 각각 1.9%p, 2.5%p 감소하였으나 2016년 36.3%로 1.6%p 증가하였다. 중위 50% 기준 빈곤율도 2013년 47.5%에서 2014년 47.2%, 2015년 44.7%로 각각 0.3%p, 2.5%p 감소하였으나 2016년 46.7%로 2.0%p 증가하였다.

〈표 Ⅲ-3〉 2013~2016년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p)

구분	분기별 빈곤율				연간 빈곤율(증감률)		
	분기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2013년	1/4	37.7	44.4	49.1	27.6	39.1	47.5
	2/4	37.8	43.5	48.2			
	3/4	38.4	44.1	50.4			
	4/4	35.2	42.2	47.9			
2014년	1/4	38.9	45.3	51.4	25.2 (-2.4)	37.2 (-1.9)	47.2 (-0.3)
	2/4	35.7	42.4	48.3			
	3/4	35.9	42.1	49.5			
	4/4	32.0	37.9	44.0			
2015년	1/4	33.7	39.5	46.6	21.5 (-3.7)	34.7 (-2.5)	44.7 (-2.5)
	2/4	30.9	35.9	42.1			
	3/4	33.7	40.7	46.9			
	4/4	31.9	39.3	44.4			
2016년	1/4	34.1	41.6	47.6	23.5 (+2.0)	36.3 (+1.6)	46.7 (+2.0)
	2/4	33.1	39.2	45.1			
	3/4	35.2	42.3	48.7			
	4/4	32.7	39.5	45.6			

주: 상대빈곤율은 처분가능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이를 토대로 분기별 노인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Ⅲ-3〉에 정리되어 있다. 동일한 연도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분기의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년 년도의 같은 분기 대비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살펴보면 2013년 4분기 대비 2014년 4분기 빈곤율이 3.9%p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2014년 3분기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

### 36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과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산출한 빈곤율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50%를 빈곤선으로 산출한 빈곤율을 차감한 것을 정부정책 효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부정책 효과는 2013년 13.1%p, 2014년 14.9%p, 2015년 18.6%p, 2016년 19.0%p로 나타나, 정부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4〉 정부 정책 효과 (연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빈곤율	시장소득	60.6	62.1	63.3	65.7
	처분가능소득	47.5	47.2	44.7	46.7
정부정책효과(%p)		13.1	14.9	18.6	19.0

주 : 1) 균등화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2)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지출  
 3) 정부정책효과 : 균등화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다음으로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절대 빈곤율은 연도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상정하여 산출한 빈곤율로, 가구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여기에서 활용한 절대빈곤선 기준은 다음 〈표 Ⅱ-5〉와 같으며, 2016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2016년 최저생계비의 경우 2015년 최저생계비에 가구규모별로 각각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다.

〈표 Ⅲ-5〉 가구원수 별 절대빈곤선 기준 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	2013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2015년 (최저생계비)	2016년 (최저생계비)
1인	572,168	603,403	617,281	621,602
2인	974,231	1,027,417	1,051,048	1,058,405
3인	1,260,315	1,329,118	1,359,688	1,369,206
4인	1,546,399	1,630,820	1,668,329	1,680,007

주: 2016년 최저생계비는 201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한 것임

분석결과, 절대빈곤율은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듬해인 2015년 28.8%로 전년 대비 약 4.4%p 감소하였으나, 2016년 33.1%로 전년 대비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분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빈곤율 추세와 유사하다.

〈표 Ⅲ-6〉 2013~2016년 절대빈곤율 추이

(단위: %, %p)

구분	분기별 빈곤율		연간 빈곤율(증감률)
2013년	1/4	36.2	34.5
	2/4	36.1	
	3/4	35.8	
	4/4	33.4	
2014년	1/4	37.4	33.2 (-1.3)
	2/4	35.8	
	3/4	33.1	
	4/4	29.7	
2015년	1/4	31.3	28.8 (-4.4)
	2/4	28.8	
	3/4	30.3	
	4/4	29.1	

### 3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구분	분기별 빈곤율		연간 빈곤율(증감률)
2016년	1/4	31.6	31.1 (+2.3)
	2/4	31.3	
	3/4	33.1	
	4/4	30.7	

주: 2016년 최저생계비는 201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다음으로 빈곤갭 비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이다. 앞서 살펴본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만 보여주는 반면, 빈곤의 심도는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빈곤갭은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빈곤율과 함께 많이 활용한다. 이때 빈곤갭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이 빈곤선에서 더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초연금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빈곤의 개선과 관련된 기초연금의 효과는 빈곤율 자체보다는 빈곤갭 비율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표 III-7〉 2013~2016년 노인의 빈곤갭 비율

(단위: %, %p)

구분	분기별 빈곤갭 비율		연간 빈곤갭 비율(증감률)
2013년	1/4	49.0	46.2
	2/4	46.5	
	3/4	47.7	
	4/4	45.1	
2014년	1/4	47.9	42.7 (-3.5)
	2/4	46.0	
	3/4	42.1	

구분	분기별 빈곤갭 비율		연간 빈곤갭 비율(증감률)
2015년	4/4	39.7	39.8 (-2.9)
	1/4	42.4	
	2/4	40.9	
	3/4	41.3	
	4/4	40.0	
2016년	1/4	42.3	40.8 (+1.0)
	2/4	41.4	
	3/4	43.3	
	4/4	40.1	

주: 빈곤갭(Poverty Gap)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분석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빈곤갭 비율은 46.2%였으나, 2014년 42.7%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39.8%까지 감소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을 기점으로 빈곤갭 비율 개선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빈곤갭 비율이 다시 40.8%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연간 빈곤갭 비율이 아닌 분기별 빈곤갭 비율로 살펴봐도 이러한 추세는 유사하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3분기를 기점으로 직전 년도의 분기별 빈곤갭 비율과 비교하면 5.6%p, 2014년 4분기에는 3.4%p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분배율 감소폭이 적어지고, 2016년에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나.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노인의 소득불평등 지표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 전·후 소득불평등 추이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때 소득불평등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5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를 중심

#### 4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는 지표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5분위로 구분한 다음 5분위 대비 1분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곧, 분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5분위 분배율을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분배율은 10.5배였으나, 2014년 8.6배로 감소하였고, 2015년 다시 7.4배로 떨어져 노인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5분위 분배율이 다시 7.8배로 높아져 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2015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

연간 분배율이 아닌 분기별 분배율로 살펴보아도 이러한 추세는 유사하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3분기를 기점으로 직전 년도의 분기별 분배율과 비교하면 3.3배p, 2014년 4분기에는 2.7배p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분배율 감소폭이 적어지고, 2016년에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III-8〉 2013~2016년 5분위 분배율

(단위: 배, 배p)

구분	분기별 분배율		연간 분배율(증감률)
2013년	1/4	12.8	10.5
	2/4	11.1	
	3/4	11.9	
	4/4	10.4	
2014년	1/4	12.1	8.6 (-1.9)
	2/4	10.4	
	3/4	8.6	
	4/4	7.7	
2015년	1/4	8.8	7.4 (-1.2)
	2/4	7.7	

### Ⅲ.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 41

구분	분기별 분배율		연간 분배율(증감률)
	3/4	8.0	
	4/4	7.6	
2016년	1/4	8.6	7.8 (+0.4)
	2/4	8.1	
	3/4	9.1	
	4/4	7.7	

주: 5분위 배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 20%(5분위/ 하위 20%(1분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한편 지니계수는 0부터 1의 값을 갖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노인 지니계수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지니계수는 0.420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후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노인의 연간 지니계수는 0.393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0.375로 감소하여 노인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2016년 다시 0.38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기별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 이후에는 지니계수가 0.4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도 직전 년도 분기별 지니계수와 비교하면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다가, 2016년에 약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II-9〉 2013~2016년 노인의 지니계수

구분	분기별 지니계수		연간 지니계수(증감률)
	1/4	2/4	
2013년	1/4	0.439	0.420
	2/4	0.429	
	3/4	0.435	
	4/4	0.414	
2014년	1/4	0.430	0.393 (-0.027)
	2/4	0.413	
	3/4	0.394	
	4/4	0.380	
2015년	1/4	0.399	0.375 (-0.018)
	2/4	0.376	
	3/4	0.386	
	4/4	0.378	
2016년	1/4	0.392	0.381 (+0.006)
	2/4	0.384	
	3/4	0.399	
	4/4	0.38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연간자료)

## 제2절 노인 특성별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변화

### 가. 노인 특성별 빈곤율 변화 분석

본 절에서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율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처분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대빈곤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는 2013년 41.5%에서 2014년 40.0%, 2015년 36.0%, 2016년 38.7%로 2015년 까지 상대빈곤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 약간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2013년 51.5%에서 2014년 51.9%, 2015년 50.3%, 2016년 51.8%

로 남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빈곤율이 높고, 기초연금 시행 이후의 빈곤율 감소율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2013년 35.0%, 2014년 31.4%, 2015년 32.2%, 2016년 32.7%이다. 70대는 2013년 54.1%, 2014년 52.9%, 2015년 48.8%, 2016년 51.3%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대는 2013년 54.8%, 2014년 62.2%, 2015년 57.2%, 2016년 58.9%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상대빈곤율은 80대, 7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연금 시행 이후 빈곤율 감소는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70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상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45.7%, 2014년 45.1%, 2015년 42.4%, 2016년 44.3%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읍면부의 경우에도 2013년 55.5%, 2014년 56.6%, 2015년 55.0%, 2016년 57.4%로 빈곤율 추세는 비슷하다. 다만 상대빈곤율 수준으로만 보면 동부보다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빈곤율이 높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빈곤율 감소폭은 동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위 30%, 중위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유사하다.

#### 44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II-10〉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30%	22.4	31.1	17.4	31.7	37.6	26.4	32.8
	40%	33.3	43.0	25.7	45.6	48.7	37.2	47.8
	<b>50%</b>	<b>41.5</b>	<b>51.5</b>	<b>35.0</b>	<b>54.1</b>	<b>54.8</b>	<b>45.7</b>	<b>55.5</b>
2014년	30%	19.0	29.4	14.6	28.1	38.7	24.1	30.5
	40%	30.0	42.0	22.3	42.3	52.3	35.3	45.9
	<b>50%</b>	<b>40.0</b>	<b>51.9</b>	<b>31.4</b>	<b>52.9</b>	<b>62.2</b>	<b>45.1</b>	<b>56.6</b>
2015년	30%	14.9	25.8	11.9	23.8	33.4	20.3	26.9
	40%	26.4	40.1	22.9	38.0	48.3	32.7	43.7
	<b>50%</b>	<b>36.0</b>	<b>50.3</b>	<b>32.2</b>	<b>48.8</b>	<b>57.2</b>	<b>42.4</b>	<b>55.0</b>
2016년	30%	18.0	27.1	14.0	25.5	35.3	21.6	32.2
	40%	29.3	40.8	24.3	40.0	47.9	33.7	48.0
	<b>50%</b>	<b>38.7</b>	<b>51.8</b>	<b>32.7</b>	<b>51.3</b>	<b>58.9</b>	<b>44.3</b>	<b>57.4</b>

주: 상대빈곤율은 처분가능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 특성에 따른 상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노인 가구를 노인 단독가구, 부부가구, 배우자가 비노인인 경우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와 자녀가 가구주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가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이는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경우나 조손가구 등이 해당된다.

우선 상대빈곤율 수준으로만 볼 때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부부가구가 그 다음으로,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 기타가구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 거노인 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30%	49.6	33.2	12.1	12.1	1.6	12.1
	40%	64.3	48.1	22.2	19.1	4.9	20.6
	<b>50%</b>	<b>74.3</b>	<b>58.6</b>	<b>26.8</b>	<b>25.3</b>	<b>9.7</b>	<b>27.3</b>
2014년	30%	47.0	26.8	11.8	10.6	2.6	10.9
	40%	63.3	41.6	22.5	17.0	3.7	20.1
	<b>50%</b>	<b>75.0</b>	<b>53.1</b>	<b>29.3</b>	<b>24.4</b>	<b>9.1</b>	<b>29.2</b>
2015년	30%	40.7	21.4	6.3	9.5	0.1	8.3
	40%	60.1	35.4	15.0	17.2	3.5	18.3
	<b>50%</b>	<b>72.9</b>	<b>47.2</b>	<b>23.7</b>	<b>21.9</b>	<b>8.2</b>	<b>25.5</b>
2016년	30%	39.8	25.5	6.8	14.7	1.1	8.3
	40%	57.7	40.5	13.9	21.9	1.9	17.8
	<b>50%</b>	<b>71.5</b>	<b>51.4</b>	<b>23.1</b>	<b>26.0</b>	<b>7.3</b>	<b>27.7</b>

주: 상대빈곤율은 처분가능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한편 기초연금 시행 전·후의 노인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2013년 74.3%에서 2014년 75.0%, 2015년 72.9%, 2016년 71.5%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2013년 58.6%, 2014년 53.1%, 2015년 47.2%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2016년 다시 51.4%로 소폭 증가하였다.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 26.8%, 2014년 29.3%, 2015년 23.7%, 2016년 23.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25.3%, 2014년 24.4%, 2015년 21.9%, 2016년 26.0%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소폭 상승하였다. 기타가구의 경우에도 2013년 27.3%, 2014년 29.2%,

## 46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2015년 25.5%, 2016년 27.7%로 비슷한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9.7%, 2014년 9.1%, 2015년 8.2%, 2016년 7.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위 30%, 중위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유사하다.

다음으로는 노인의 특성별로 절대빈곤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선 상대빈곤을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절대빈곤을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절대빈곤선이 상대빈곤선보다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는 2013년 30.5%에서 2014년 28.2%, 2015년 22.3%, 2016년 27.1%로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약간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2013년 37.3%에서 2014년 36.4%, 2015년 32.9%, 2016년 33.7%로 남자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앞선 상대빈곤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해도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빈곤율이 높고, 반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의 빈곤 감소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2013년 22.3%, 2014년 20.8%, 2015년 18.4%, 2016년 19.8%로 나타나고 있다. 70대는 2013년 40.0%, 2014년 36.8%, 2015년 31.3%, 2016년 34.8%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대는 2013년 45.4%, 2014년 47.7%, 2015년 41.7%, 2016년 41.5%이다. 빈곤율은 80대, 7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절대빈곤율 감소는 80대와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2〉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절대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30.5	37.3	22.3	40.0	45.1	32.9	41.7
2014년	28.2	36.4	20.8	36.8	47.7	31.4	41.4
2015년	22.3	32.9	18.4	31.3	41.7	27.1	36.3
2016년	27.1	33.7	19.8	34.8	41.5	29.2	39.8

주: 절대빈곤율은 2015년까지는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를, 2016년은 201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빈곤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절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32.9%, 2014년 31.4%, 2015년 27.1%, 2016년 29.2%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증가하고 있다. 읍면부의 경우에도 2013년 41.7%, 2014년 41.4%, 2015년 36.3%, 2016년 39.8%로 절대빈곤율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앞선 상대빈곤율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빈곤율 수준으로만 보면 동부보다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빈곤율이 높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절대빈곤율 감소폭은 읍면부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 특성에 따른 절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절대빈곤율 수준으로만 볼 때 앞선 상대빈곤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부부가구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 기타가구가 연도에 따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II-13〉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절대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 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51.6	44.7	20.2	17.9	7.2	20.1
2014년	49.6	39.7	20.5	18.9	6.0	20.0
2015년	44.8	32.1	11.7	16.5	4.1	17.0
2016년	43.4	37.7	13.7	22.0	2.7	17.3

주: 절대빈곤율은 2015년까지는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를, 2016년은 201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빈곤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기초연금 시행 전·후의 노인 절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51.6%에서 2014년 49.6%, 2015년 44.8%, 2016년 43.4%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44.7%, 2014년 39.7%, 2015년 32.1%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2016년 37.7%로 소폭 증가하였다.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20.2%, 2014년 20.5%, 2015년 11.7%로 감소하다가 2016년 13.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17.9%, 2014년 18.9%, 2015년 16.5%, 2016년 22.0%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상승하였다. 기타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 20.1%, 2014년 20.0%, 2015년 17.0%, 2016년 17.3%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7.2%, 2014년 6.0%, 2015년 4.1%, 2016년 2.7%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빈곤의 수준만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의 심도인 빈곤갭 비율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의 빈곤갭 비율은 2013년 44.3%에서 2014년 40.0%, 2015년 36.3%, 2016년 38.5%로 2015년

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약간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2013년 47.2%에서 2014년 44.0%, 2015년 41.4%, 2016년 41.9%로 나타났다. 앞선 빈곤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빈곤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시행 이후 빈곤갭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4〉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빈곤갭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44.3	47.2	41.6	46.5	52.1	45.6	48.3
2014년	40.0	44.0	37.5	42.6	48.2	42.6	42.8
2015년	36.3	41.4	34.3	40.0	45.2	39.6	40.4
2016년	38.5	41.9	36.6	41.1	44.4	40.0	43.6

주: 빈곤갭(Poverty Gap)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빈곤갭 비율은 2013년 41.6%, 2014년 37.5%, 2015년 34.3%, 2016년 36.6%로 나타나고 있다. 70대는 2013년 46.5%, 2014년 42.6%, 2015년 40.0%, 2016년 41.1%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대는 2013년 52.1%, 2014년 48.2%, 2015년 45.2%, 2016년 44.4%이다. 빈곤갭 비율은 80대, 7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빈곤갭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다가 60대와 70대에서는 2016년에 약간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갭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동부는 2013년 45.6%, 2014년 42.6%, 2015년 39.6%, 2016년 40.0%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증가하였다. 읍면부의 경우에도

## 5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2013년 48.3%, 2014년 42.8%, 2015년 40.4%, 2016년 43.6%로 나타났다. 빈곤갭 비율의 수준으로만 보면 동부보다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빈곤의 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가구 특성에 따른 빈곤갭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빈곤갭 비율의 수준으로만 살펴보면 앞선 빈곤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부부가구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 기타가구가 연도에 따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50.4%에서 2014년 46.8%, 2015년 42.8%, 2016년 44.0%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소폭 상승하였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2013년 45.5%, 2014년 42.9%, 2015년 38.5%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2016년 39.8%로 소폭 증가하였다.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40.8%, 2014년 37.4%, 2015년 28.7%로 감소하다가 2016년 30.8%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41.0%, 2014년 35.9%, 2015년 40.4%, 2016년 42.8%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상승하였다. 기타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 39.5%, 2014년 32.1%, 2015년 34.3%, 2016년 31.6%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24.0%, 2014년 21.7%, 2015년 17.3%, 2016년 19.9%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5〉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빈곤갭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노인 가구주	자녀동거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50.4	45.5	40.8	41.0	24.0	39.5
2014년	46.8	42.9	37.4	35.9	21.7	32.1
2015년	42.8	38.5	28.7	40.4	17.3	34.3
2016년	44.0	39.8	30.8	42.8	19.9	31.6

주: 빈곤갭(Poverty Gap)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 나. 노인 특성별 소득불평등 변화 분석

여기에서는 앞서 분석한 5분위 분배율과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노인의 특성 및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5분위 분배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의 5분위 분배율은 2013년 9.6배에서 2014년 7.6배, 2015년 6.4배, 2016년 6.9배로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약간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에도 2013년 11.0배에서 2014년 9.1배, 2015년 7.9배, 2016년 8.2배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5분위 분배율이 높게 나타나 불평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시행 이후 5분위 분배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II-16〉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5분위 분배율 추이

(단위: 배)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9.6	11.0	8.6	10.0	14.2	10.4	10.7
2014년	7.6	9.1	6.8	8.2	11.7	8.6	8.4
2015년	6.4	7.9	5.9	7.3	9.9	7.3	7.6
2016년	6.9	8.2	6.4	7.7	8.9	7.5	8.5

주: 5분위 배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 20%(5분위/ 하위 20%(1분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2013년 8.6배, 2014년 6.8배, 2015년 5.9배, 2016년 6.4배로 나타나고 있다. 70대는 2013년 10.0배, 2014년 8.2배, 2015년 7.3배, 2016년 7.7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대는 2013년 14.2배, 2014년 11.7배, 2015년 9.9배, 2016년 8.9배이다. 5분위 분배율은 8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분배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다가 60대와 70대에서 2016년에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5분위 분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10.4배, 2014년 8.6배, 2015년 7.3배, 2016년 7.5배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증가하였다. 읍면부의 경우에도 2013년 10.7배, 2014년 8.4배, 2015년 7.6배, 2016년 8.5배로 나타났다. 분배율 수준으로 보면 읍면부보다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가구 특성에 따른 5분위 분배율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5분위 분배율 수준으로만 살펴보면 기초연금 시행 전 2013년 기준으로는 노인부부 가구의 분배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단독 가구, 기타가구,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와 자녀동거 노인 가구주 가구, 자

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후에는 노인단독 가구의 분배율이 다시 높아졌고, 비노인배우자 부부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기타가구의 분배율이 높았으며 노인부부 가구,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가구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Ⅲ-17〉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5분위 분배율 추이

(단위: 배)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 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10.1	10.7	6.6	6.6	4.3	6.7
2014년	7.7	9.1	6.0	6.1	3.7	5.2
2015년	6.3	7.0	4.4	6.5	3.7	4.8
2016년	7.8	6.2	5.8	7.2	3.5	4.8

주: 5분위 배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 20%(5분위/ 하위 20%(1분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10.1배에서 2014년 7.7배, 2015년 6.3배, 2016년 7.8배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였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2013년 10.7배, 2014년 9.1배, 2015년 7.0배, 2016년 6.2배였다.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는 2013년 6.6배, 2014년 6.0배, 2015년 4.4배, 2016년 5.8배였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6.6배, 2014년 6.1배, 2015년 6.5배, 2016년 7.2배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 6.7배, 2014년 5.2배, 2015년 4.8배, 2016년 4.8배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4.3배, 2014년 3.7배, 2015년 3.7배, 2016년 3.5배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의 지니계수는 2013년

## 54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0.401에서 2014년 0.366, 2015년 0.344, 2016년 0.356으로 2015년 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약간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2013년 0.430에서 2014년 0.408, 2015년 0.392, 2016년 0.394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통해 볼 때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시행 이후 소득불평등이 감소하다가 2016년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대의 경우 2013년 0.381, 2014년 0.349, 2015년 0.335, 2016년 0.341로 나타나고 있다. 70대는 2013년 0.419, 2014년 0.392, 2015년 0.375, 2016년 0.382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대는 2013년 0.476, 2014년 0.450, 2015년 0.432, 2016년 0.416이다. 지니계수는 80대, 7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나 80대의 소득불평등도가 높고, 70대, 60대 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지니계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다가 60대와 70대에서는 2016년에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0.418, 2014년 0.389, 2015년 0.371, 2016년 0.374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약간 상승하였다. 읍면부의 경우에도 2013년 0.422, 2014년 0.406, 2015년 0.388, 2016년 0.404로 나타났다. 지니계수의 수준으로만 판단할 때 동부보다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불평등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8〉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지니계수 추이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0.401	0.430	0.381	0.419	0.476	0.418	0.422
2014년	0.366	0.408	0.349	0.392	0.450	0.389	0.406
2015년	0.344	0.392	0.335	0.375	0.432	0.371	0.388
2016년	0.356	0.394	0.341	0.382	0.416	0.374	0.40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으로는 노인가구 특성에 따른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앞선 5분위 배율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 부부가구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단독가구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노인배우자 노인가구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 기타가구가 연도에 따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0.418에서 2014년 0.392, 2015년 0.362, 2016년 0.395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 상승하였다.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2013년 0.437, 2014년 0.402, 2015년 0.368, 2016년 0.348로 꾸준히 감소했다.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0.348, 2014년 0.324, 2015년 0.288로 감소하다가 2016년 0.335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0.328, 2014년 0.319, 2015년 0.324, 2016년 0.337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소폭 상승했다. 기타가구의 경우에는 2013년 0.340, 2014년 0.304, 2015년 0.288, 2016년 0.293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0.287, 2014년 0.253, 2015년 0.258, 2016년 0.245로 나타나고 있다.

## 56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II-19〉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지니계수 추이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노인 가구주	자녀동거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0.418	0.437	0.348	0.328	0.287	0.340
2014년	0.392	0.402	0.324	0.319	0.253	0.304
2015년	0.362	0.368	0.288	0.324	0.258	0.288
2016년	0.395	0.348	0.335	0.337	0.245	0.29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율과 빈곤갭, 소득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 중위소득의 30%, 40%, 50%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대빈곤율의 경우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빈곤율이 하락했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절대빈곤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빈곤의 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빈곤갭 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소득불평등을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 뿐 아니라 분기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도 이러한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특성별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부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빈곤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특성별 빈곤율 추이의 경우에는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높았고,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기타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빈곤율이 감소하다가 2016년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갭 비율의 경우에도 빈곤율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전·후 소득불평등 변화를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읍면부보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의 소득불평등을 비교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완화되다가 2016년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 특성별 소득불평등 추이의 경우에도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불평등이 높았고, 노인단독, 비노인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기타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연금 도입 이후 소득불평등은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가구들의 경우 빈곤율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빈곤율·빈곤갭 및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이러한 추세가 변화하여 2016년 빈곤율·빈곤갭 및 소득불평등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노인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 상향, 혹은 기초연금액 연동방법의 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 5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 Ⅳ.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어떤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빈곤율을 산출 시 활용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의 빈곤율과, 가처분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설정한 후 두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빈곤율과 빈곤갭, 소득불평등의 차이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노인 특성 및 노인 가구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분석하도록 하겠다.

### 제1절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 가.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우선 연도별로 절대빈곤율·상대빈곤율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VII-1>이다. 여기에서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각의 빈곤율을 산출하고,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 빈곤율을 산출하여 그 차이만큼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로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47.5%였으며, 당시의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빈곤율은 50.4%로 기초노령연금은 2.9%p의 빈곤율을 완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에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47.2%,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빈곤율은 51.2%로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4.0%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 6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높아졌다. 또한 2015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44.7%,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빈곤율은 50.3%로 기초연금은 5.6%p의 빈곤율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46.7%,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경우의 빈곤율은 51.8%로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는 5.1%p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0.5%p가 감소하였다.

〈표 IV-1〉 연도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2)	(1)	(2)	(1)	(2)	(1)	(2)
상대빈곤율	47.5	50.4 (2.9)	47.2	51.2 (4.0)	44.7	50.3 (5.6)	46.7	51.8 (5.1)
절대빈곤율	34.5	39.0 (4.5)	33.2	39.5 (6.3)	28.8	38.6 (9.8)	31.1	39.9 (8.8)
빈곤갭	46.2	51.5 (5.3)	42.7	50.9 (8.2)	39.8	50.9 (11.1)	40.8	52.6 (11.8)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노령)연금만 제외 시 기준  
 주 2: 절대빈곤율의 경우 2015년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의 경우 201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을 빈곤선으로 활용하였음, 또한 상대빈곤율의 경우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상정하여 분석함, 빈곤갭 비율의 경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함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다음으로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4.5%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빈곤율은 39.0%로 기초노령연금은 4.5%p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갖고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3.2%,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빈곤율은 39.5%로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6.3%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 또한 2015년에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8.8%,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빈곤율은 38.6%로 기초연금은 9.8%p의 빈곤율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곧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1.1%,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경우의 빈곤율은 39.9%로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는 8.8%p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1%p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이며,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는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갭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갭 비율은 46.2%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빈곤갭 비율은 51.5%로 기초노령연금은 5.3%p의 빈곤갭 비율을 완화시켰다.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갭 비율은 42.7%,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빈곤갭 비율은 50.9%로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효과는 8.2%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 또한 2015년에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갭 비율은 39.8%,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빈곤갭 비율은 50.9%로 기초연금은 11.1%p의 빈곤갭 비율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갭 비율은 40.8%,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경우의 빈곤갭 비율은 52.6%로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11.8%p로 나타나, 2015년과 비교할 때 소폭이기는 하지만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앞선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와 비교하면, 기초연금은 빈곤율 완화 효과보다 빈곤갭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6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16년에 감소하지만 빈곤갭 감소 효과는 2016년에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표 IV-2〉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분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도 앞선 연도별 분석결과인 〈표 IV-1〉과 유사한데,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4년 3분기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효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기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3분기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상대·절대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2분기의 경우 2014년 2분기의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는 2.2%p였으나 2014년 3분기에 3.7%p로 증가하고, 2014년 4분기에는 5.5%p까지 증가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의 절대빈곤율 완화 효과가 3.7%인 반면, 2014년 3분기에는 9.4%p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에는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빈곤갭 비율의 경우에도 2014년 2분기에는 6.1%p였으나 2014년 3분기에는 11.8%p로 증가하였고 2016년 3분기와 4분기에는 12.0%p 정도까지 증가했다.

〈표 IV-2〉 분기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상대빈곤율	49.1	51.2 (2.1)	48.2	50.8 (2.6)	50.4	52.7 (2.3)	47.9	50.8 (2.9)
절대빈곤율	36.2	40.3 (4.1)	36.1	40.8 (4.7)	35.8	40.1 (4.3)	33.4	37.2 (3.8)
빈곤갭	49.0	54.8 (5.8)	46.5	52.5 (6.0)	47.7	53.3 (5.6)	45.1	50.3 (5.2)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상대빈곤율	51.4	53.3 (1.9)	48.3	50.5 (2.2)	49.5	53.2 (3.7)	44.0	49.5 (5.5)
절대빈곤율	37.4	42.0 (4.6)	35.8	39.5 (3.7)	33.1	42.5 (9.4)	29.7	38.0 (8.3)
빈곤갭	47.9	53.7 (5.8)	46.0	52.1 (6.1)	42.1	53.9 (11.8)	39.7	50.7 (11.0)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상대빈곤율	46.6	51.2 (4.6)	42.1	48.3 (6.2)	46.9	53.1 (6.2)	44.4	50.5 (6.1)
절대빈곤율	31.3	39.3 (8.0)	28.8	37.6 (8.8)	30.3	40.7 (10.4)	29.1	38.9 (9.8)
빈곤갭	42.4	53.5 (11.1)	40.9	52.1 (11.2)	41.3	52.6 (11.3)	40.0	51.3 (11.3)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상대빈곤율	47.6	53.4 (5.8)	45.1	50.2 (5.1)	48.7	52.9 (3.2)	45.6	50.8 (5.2)
절대빈곤율	31.6	41.0 (9.4)	31.3	39.9 (8.6)	33.1	41.6 (8.5)	30.7	39.5 (8.8)
빈곤갭	42.3	53.9 (11.6)	41.4	53.9 (12.5)	43.3	55.3 (12.0)	40.1	52.4 (12.3)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노령)연금만 제외 시 기준  
 주 2: 절대빈곤율의 경우 2015년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의 경우 2015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을 빈곤선으로 활용하였음, 또한 상대빈곤율의 경우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상정하여 분석함, 빈곤갭 비율의 경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함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 나.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다음으로는 연도별로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각을 산출하고,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를 산출하여 그 차이만큼을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로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5분위 배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0.5배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5분위 배율은 14.6배로 기초노령연금은 4.1배p의 분배율을 완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준으로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6배,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5분위 배율은 13.8배로 기초연금의 분배율 완화효과는 5.2배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 또한 2015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7.4배,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5분위 배율은 13.2배로 기초연금은 5.8배p의 분배율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7.8배,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경우의 5분위 배율은 14.5배로 기초연금을 통한 분배율 완화 효과는 6.7배p로 나타나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분배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1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20이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지니계수는 0.450으로 기초연금은 지니계수를 0.03 완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3,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이후의 지니계수는 0.438로 기초연금이 지니계수를 0.045 감소시켰으며, 2015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75,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지니계수는 0.435로

기초연금을 통해 지니계수가 0.06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81,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경우의 지니계수는 0.442로 기초연금을 통해 0.061의 지니계수가 완화되어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소폭이긴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연도별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단위: 배, 배p, %, %p)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2)	(1)	(2)	(1)	(2)	(1)	(2)
5분위배율	10.5	14.6 (4.1)	8.6	13.8 (5.2)	7.4	13.2 (5.8)	7.8	14.5 (6.7)
지니계수	0.420	0.450 (0.03)	0.393	0.438 (0.045)	0.375	0.435 (0.06)	0.381	0.442 (0.061)

주: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한편, 다음의 〈표 IV-4〉는 분기별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3분기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2분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가 4.6배p인 반면, 2014년 3분기에는 7.6배p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2분기의 지니계수는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0.031 감소했으나,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는 0.059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66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V-4〉 분기별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단위: %)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5분위배율	12.8	19.2 (6.4)	11.1	15.8 (4.7)	11.9	17.2 (5.3)	10.4	14.6 (4.2)
지니계수	0.439	0.470 (0.031)	0.429	0.460 (0.031)	0.435	0.465 (0.03)	0.414	0.444 (0.03)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5분위배율	12.1	18.1 (6.0)	10.4	15.0 (4.6)	8.6	16.2 (7.6)	7.7	13.8 (6.1)
지니계수	0.430	0.462 (0.032)	0.413	0.444 (0.031)	0.394	0.453 (0.059)	0.380	0.438 (0.058)
201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5분위배율	8.8	16.9 (8.1)	7.7	14.4 (6.7)	8.0	15.4 (7.4)	7.6	14.2 (6.6)
지니계수	0.399	0.458 (0.059)	0.376	0.437 (0.061)	0.386	0.449 (0.063)	0.378	0.439 (0.061)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1)	(2)	(1)	(2)	(1)	(2)
5분위배율	8.6	17.7 (9.1)	8.1	15.3 (7.2)	9.1	18.1 (9.0)	7.7	14.3 (6.6)
지니계수	0.392	0.458 (0.066)	0.384	0.445 (0.061)	0.399	0.460 (0.061)	0.382	0.443 (0.061)

주: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 제2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가. 기초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

여기에서는 앞서 전체적으로 살펴본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기초연금 수급자 특성 및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5>와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2.8%p의 빈곤율을 완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3.8%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약간 상승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5.1%p로 더 상승하여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남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기초연금을 통한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는 4.4%p로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여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2.9%p의 빈곤율을 완화하였으며,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4.2%p, 2015년에는 6.0%p로 나타났다. 한편 남자와는 다르게 2016년 기초연금을 통한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는 6.6%p로 나타나 기초연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남자보다 여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남자의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때 6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1.8%p의 상대빈곤율을 완화하였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5.0%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약 3.2%p 높아졌으며, 2015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5.1%p로

## 6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나타났다. 곧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60대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 기초연금을 통한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는 4.8%p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IV-5〉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1)	41.5	51.5	35.0	54.1	54.8	45.7	55.5
	(2)	44.3 (2.8)	54.4 (2.9)	36.8 (1.8)	57.1 (3.0)	59.9 (5.1)	48.8 (3.1)	57.7 (2.2)
2014년	(1)	40.0	51.9	31.4	52.9	62.2	45.1	56.6
	(2)	43.8 (3.8)	56.1 (4.2)	36.4 (5.0)	57.0 (4.1)	63.8 (1.6)	49.6 (4.5)	58.6 (2.0)
2015년	(1)	36.0	50.3	32.2	48.8	57.2	42.4	55.0
	(2)	41.1 (5.1)	56.3 (6.0)	37.3 (5.1)	55.5 (6.7)	61.0 (3.8)	48.3 (5.9)	59.7 (4.7)
2016년	(1)	38.7	51.8	32.7	51.3	58.9	44.3	57.4
	(2)	43.3 (4.4)	57.2 (6.6)	37.5 (4.8)	56.9 (5.6)	63.5 (4.4)	49.4 (5.1)	62.6 (5.2)

주: 1) 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2) 상대빈곤율은 처분가능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7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빈곤율을 3.0%p 완화하였으며,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4.1%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다. 또한 2015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6.7%p, 2016년 5.6%p로 나타나 2015년과 비교할 때 기초연금의 상대

빈곤율 완화효과가 소폭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8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5.1%p의 빈곤율을 완화하였으며,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1.6%p로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3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2015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3.8%p, 2016년에는 4.4%p로 나타나 80대의 경우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다르게 2014년 오히려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3.1%p의 빈곤율을 완화하였다. 이후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4.5%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으며, 2015년에 5.9%p로 증가했다가 2016년 5.1%p로 낮아졌다. 읍면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2.2%p의 상대빈곤율을 완화하였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2.0%p였으며, 2015년에는 4.7%p, 2016년에는 기초연금 상대빈곤율 완화효과가 5.2%p로 나타났다. 동부와 읍면부 모두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가 커졌으나 동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의 경우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2015년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3.3%p이다. 2014년에는 4.8%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약간 높아졌으며, 또한 2015년에 5.1%p로 빈곤율 완화효과가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기초연금 상대빈곤율 완화효과가 4.9%p로 낮아졌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3.1%p이다. 이후 2014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4.7%p였으며, 2015년 7.7%p, 2016년에는 7.3%p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

## 7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3%p였으며, 2014년 3.0%p, 2015년에는 2.4%p, 2016년에는 오히려 0.4%p 증가했다.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3%p, 2014년 1.9%p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3.7%p로 증가했으며 2016년 다시 3.5%p로 소폭 감소했다.

〈표 IV-6〉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 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1)	74.3	58.6	26.8	25.3	9.7	27.3
	(2)	77.6 (3.3)	61.7 (3.1)	29.1 (2.3)	27.6 (2.3)	11.7 (2.0)	30.6 (3.3)
2014년	(1)	75.0	53.1	29.3	24.4	9.1	29.2
	(2)	79.8 (4.8)	57.8 (4.7)	32.3 (3.0)	26.3 (1.9)	11.8 (2.7)	33.5 (4.3)
2015년	(1)	72.9	47.2	23.7	21.9	8.2	25.5
	(2)	78.0 (5.1)	54.9 (7.7)	26.1 (2.4)	25.6 (3.7)	12.0 (3.8)	31.6 (6.1)
2016년	(1)	71.5	51.4	23.1	26.0	7.3	27.7
	(2)	76.4 (4.9)	58.7 (7.3)	22.7 (-0.4)	29.5 (3.5)	9.3 (2.0)	33.2 (5.5)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2) 상대빈곤율은 처분가능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또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p였으며 2014년 2.7%p로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 3.8%p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2.0%p로 감소했다. 기타가

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3.3%p였으며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p로 증가했으며, 2015년 6.1%p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5.3%p로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가구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기타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며, 노인부부 가구를 제외하면 2016년에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절대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3.5%p였다.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효과는 5.0%p로 2013년과 비교할 때 높아졌으며, 2015년에는 8.3%p로 높아진다. 그러나 2016년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는 6.4%p로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5.1%p였으며, 2014년 7.2%p로 높아졌다. 또한 2015년 기초연금은 10.9%p의 절대빈곤율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여자 노인의 기초연금을 통한 절대빈곤율 완화 효과는 10.3%p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크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남자보다 여자의 기초연금 빈곤율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2015년까지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때 6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9%p였는데 2014년에는 3.2%p로 높아졌다. 또한 2015년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6.7%p로 더 높아졌으나 2016년에는 5.8%p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 7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V-7〉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절대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1)	30.5	37.3	22.3	40.0	45.1	32.9	41.7
	(2)	34.0 (3.5)	42.4 (5.1)	25.2 (2.9)	45.8 (5.8)	49.1 (4.0)	37.2 (4.3)	47.3 (5.6)
2014년	(1)	28.2	36.4	20.8	36.8	47.7	31.4	41.4
	(2)	33.2 (5.0)	43.6 (7.2)	24.0 (3.2)	44.8 (8.0)	54.9 (7.2)	37.5 (6.1)	48.7 (7.3)
2015년	(1)	22.3	32.9	18.4	31.3	41.7	27.1	36.3
	(2)	30.6 (8.3)	43.8 (10.9)	25.1 (6.7)	43.0 (11.7)	52.4 (10.7)	36.1 (9.0)	50.1 (13.8)
2016년	(1)	27.1	33.7	19.8	34.8	41.5	29.2	39.8
	(2)	33.5 (6.4)	44.0 (10.3)	25.6 (5.8)	44.8 (10.0)	52.2 (10.7)	37.3 (8.1)	51.6 (11.8)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2) 절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7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5.8%p였으며 2014년 8.0%p, 2015년 11.7%p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는 10.0%p로 약간 감소한다. 8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4.0%p였으며, 2014년 7.2%p, 2015년과 2016년 10.7%p로 증가했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4.3%p였다. 이후 2014년 6.1%p, 2015년 9.0%p, 2016년 8.1%p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읍면부의 경우 2013년 5.6%p, 2014년 7.3%p, 2015년 13.8%p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에는 기초연금 절대빈곤율 완화효과가 11.8%p로 감소하였다. 나타났다. 동부

와 읍면부 모두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을 완화 효과가 커졌으나 이는 읍면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동부와 읍면부 모두 2016년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을 완화 효과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절대빈곤을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을 완화 효과는 6.4%p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 11.1%p, 2015년 16.5%p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6년에는 기초연금 절대빈곤을 완화효과가 14.9%p로 약간 낮아졌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2013년 6.1%p, 2014년 6.9%p, 2015년 10.9%p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기초연금 빈곤을 완화효과가 9.0%p로 소폭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1.1%p, 2014년 2.0%p, 2015년 3.1%p, 2016년 3.6%p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을 완화 효과는 3.0%p였다가, 2014년 3.9%p, 2015년 4.7%p로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2.3%p로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는 2013년 1.0%p, 2014년 0.7%p로 오히려 감소했다가 2015년 0.4%p, 2016년에는 2.3%p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절대빈곤을 완화 효과는 2.3%p였으며, 2014년 2.5%p, 2015년 5.1%p, 2016년 5.4%p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노인가구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이후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을 완화효과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선 상대빈곤을 완화효과와 유사하며,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을 완화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74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표 IV-8〉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절대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노인 가구주	자녀동거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1)	51.6	44.7	20.2	17.9	7.2	20.1
	(2)	58.0 (6.4)	50.8 (6.1)	21.3 (1.1)	20.9 (3.0)	8.2 (1.0)	22.4 (2.3)
2014년	(1)	49.6	39.7	20.5	18.9	6.0	20.0
	(2)	60.7 (11.1)	46.6 (6.9)	22.5 (2.0)	22.8 (3.9)	6.7 (0.7)	22.5 (2.5)
2015년	(1)	44.8	32.1	11.7	16.5	4.1	17.0
	(2)	61.3 (16.5)	43.0 (10.9)	14.8 (3.1)	21.2 (4.7)	4.5 (0.4)	22.1 (5.1)
2016년	(1)	43.4	37.7	13.7	22.0	2.7	17.3
	(2)	58.3 (14.9)	46.7 (9.0)	17.3 (3.6)	24.3 (2.3)	5.0 (2.3)	22.7 (5.4)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2) 절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은 빈곤갭 비율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표 IV-9〉에 정리되어 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4.9%p였다. 이후 2014년 7.4%p, 11.0%p, 2016년 11.3%p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5.6%p였는데, 2014년 8.7%p, 2015년 11.3%p, 2016년 12.1%p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큰 차이는 없지만 여자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때 6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4.7%p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

#### IV.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75

3.2%p, 2015년 7.4%p, 2016년에는 8.3%p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7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6.0%p였으며, 2014년 9.4%p, 2015년 11.7%p, 2016년 12.4%p로 나타나고 있다. 80대의 경우에도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은 3.8%p였으나, 2014년 11.8%p, 2015년 14.8%p, 2016년 14.3%p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기초연금이 이들의 빈곤심도를 완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IV-9〉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1)	44.3	47.2	41.6	46.5	52.1	45.6	48.3
	(2)	49.2 (4.9)	52.8 (5.6)	46.3 (4.7)	52.5 (6.0)	55.9 (3.8)	50.6 (5.0)	55.1 (6.8)
2014년	(1)	40.0	44.0	37.5	42.6	48.2	42.6	42.8
	(2)	47.4 (7.4)	52.7 (8.7)	40.7 (3.2)	52.0 (9.4)	60.0 (11.8)	49.9 (7.3)	54.5 (11.7)
2015년	(1)	36.3	41.4	34.3	40.0	45.2	39.6	40.4
	(2)	47.3 (11.0)	52.7 (11.3)	41.7 (7.4)	51.7 (11.7)	60.0 (14.8)	50.0 (10.4)	54.6 (14.2)
2016년	(1)	38.5	41.9	36.6	41.1	44.4	40.0	43.6
	(2)	49.8 (11.3)	54.0 (12.1)	44.9 (8.3)	53.5 (12.4)	58.7 (14.3)	51.3 (11.3)	57.2 (13.6)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2) 절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한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은 5.0%p였으나 2014년 7.3%p, 2015년 10.4%p, 2016년 11.3%p로 증가하고 있다. 읍면부의 경우에도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6.8%p였으나 2014년 11.7%p, 2015년 14.2%p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13.6%p로 소폭 감소하였다. 동부와 읍면부 모두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커졌으나 빈곤갭 비율 감소효과는 읍면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읍면부의 경우에는 2016년에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6.3%p였다. 이후 2014년 9.6%p, 2015년 13.7%p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3.8%p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6.9%p였으나, 2014년 9.2%p, 2015년 11.9%p, 2016년 12.2%p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0.5%p였으며 2014년 1.4%p, 2015년 4.3%p, 2016년에는 8.4%p까지 증가하였다.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효과는 1.9%p였는데 2014년 5.6%p, 2015년 6.7%p, 2016년 8.1%p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효과는 -1.4%p였다. 이후 2014년 -0.5%p, 2015년 -0.1%p, 2016년 3.2%p로 증가했다. 다른 가구들과 다른 이러한 양상은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자녀가 가구주이므로 기초연금 효과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는 1.5%p, 2014년 5.4%p, 2015년 4.4%p, 2016년 6.3%p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구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이다. 또한 노인가구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0〉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 거노인 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1)	50.4	45.5	40.8	41.0	24.0	39.5
	(2)	56.7 (6.3)	52.4 (6.9)	41.3 (0.5)	42.9 (1.9)	22.6 (-1.4)	41.0 (1.5)
2014년	(1)	46.8	42.9	37.4	35.9	21.7	32.1
	(2)	56.4 (9.6)	52.1 (9.2)	38.8 (1.4)	41.5 (5.6)	21.2 (-0.5)	37.5 (5.4)
2015년	(1)	42.8	38.5	28.7	40.4	17.3	34.3
	(2)	56.5 (13.7)	50.4 (11.9)	33.0 (4.3)	47.1 (6.7)	17.2 (-0.1)	38.7 (4.4)
2016년	(1)	44.0	39.8	30.8	42.8	19.9	31.6
	(2)	57.8 (13.8)	52.0 (12.2)	39.2 (8.4)	50.9 (8.1)	23.1 (3.2)	37.9 (6.3)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2) 절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 나. 기초연금 수급가구 특성별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초연금

## 78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수급자 특성 및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5분위 배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11>과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3.1배p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 3.5배p, 2015년 3.8배p, 2016년에는 3.8배p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4.9배p였으며 2014년 6.1배p, 2015년 7.1배p, 2016년 8.0배p로 나타나 기초연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남자보다 여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남자·여자 모두 기초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IV-11>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5분위 배율 완화 효과

(단위: 배, 배p, %, %p)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1)	9.6	11.0	8.6	10.0	14.2	10.4	10.7
	(2)	12.7 (3.1)	15.9 (4.9)	10.6 (2.0)	14.4 (4.4)	24.1 (9.9)	14.1 (3.7)	16.5 (5.8)
2014년	(1)	7.6	9.1	6.8	8.2	11.7	8.6	8.4
	(2)	11.1 (3.5)	15.2 (6.1)	8.4 (1.6)	13.8 (5.6)	25.8 (14.1)	13.5 (4.9)	14.6 (6.2)
2015년	(1)	6.4	7.9	5.9	7.3	9.9	7.3	7.6
	(2)	10.2 (3.8)	15.0 (7.1)	7.9 (2.0)	14.2 (6.9)	24.5 (14.6)	12.7 (5.4)	15.3 (7.7)
2016년	(1)	6.9	8.2	6.4	7.7	8.9	7.5	8.5
	(2)	11.7 (4.8)	16.2 (8.0)	9.3 (2.9)	15.6 (7.9)	21.9 (13.0)	13.5 (6.0)	18.8 (10.3)

주: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2) 5분위 배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 20%(5분위/ 하위 20%(1분위))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때 6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2.0배p, 2014년 1.6배p, 2015년 2.0배p, 2016년 2.9배p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7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4.4배p였으며, 2014년 5.6배p, 2015년 6.9배p, 2016년에는 7.9배p로 나타났다. 8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9.9배p, 2014년 14.1배p, 2015년 14.6배p, 2016년 13.0배p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이러한 완화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3.7배p, 2014년 4.9배p, 2015년 5.4배p, 2016년에는 6.0배p로 나타났다. 읍면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5.8배p, 2014년 6.2배p, 2015년 7.7배p, 2016년 10.3배p로 나타났다. 동부와 읍면부 모두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효과가 커졌으나 5분위 배율 완화효과는 읍면부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5분위 배율을 7.1배p 완화하였다. 이후 2014년 6.8배p, 2015년 7.7배p, 2016년 11.4배p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3.7배p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 7.7배p였으며, 2015년 7.5배p, 2016년에는 7.1배p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 효과는 0.8배p, 2014년 0.9배p였으며, 2015년 0.7배p, 2016년에는 1.0배p로 나타났다.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5분위 배

## 80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을 완화 효과는 0.7배p, 2014년 1.0배p, 2015년 1.9배p, 2016년에는 2.7배p로 나타났다.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0.1배p에서 2014년 0.2배p, 2015년 0.3배p, 2016년 0.3배p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가구의 경우 2013~2015년 1.0배p, 2016년 1.4배p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효과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 가구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5분위 배율 완화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5분위 배율 완화 효과

(단위: 배, 배p)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 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1)	10.1	10.7	6.6	6.6	4.3	6.7
	(2)	17.2 (7.1)	16.4 (3.7)	7.4 (0.8)	7.3 (0.7)	4.4 (0.1)	7.7 (1.0)
2014년	(1)	7.7	9.1	6.0	6.1	3.7	5.2
	(2)	14.5 (6.8)	16.8 (7.7)	6.9 (0.9)	7.1 (1.0)	3.9 (0.2)	6.2 (1.0)
2015년	(1)	6.3	7.0	4.4	6.5	3.7	4.8
	(2)	14.0 (7.7)	14.5 (7.5)	5.1 (0.7)	8.4 (1.9)	4.0 (0.3)	5.8 (1.0)
2016년	(1)	7.8	6.2	5.8	7.2	3.5	4.8
	(2)	19.2 (11.4)	13.3 (7.1)	6.8 (1.0)	9.9 (2.7)	3.8 (0.3)	6.2 (1.4)

주 : 1)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2) 5분위 배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 20%(5분위/ 하위 20%(1분위))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은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노인 특성별로 지니계수

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지니계수를 0.026 완화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0.037, 2015년 0.049로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0.052로 상승하였다. 여자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지니계수 완화 효과는 0.033이었으며, 2014년 0.051, 2015년 0.066, 2016년 0.068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곧 남자보다 여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남자·여자 모두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 효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IV-13〉 2013~2016년 노인 특성별 지니계수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남	여	60대	70대	80대	동부	읍면부	
2013년	(1)	0.401	0.430	0.381	0.419	0.476	0.418	0.422
	(2)	0.427 (0.026)	0.463 (0.033)	0.399 (0.018)	0.455 (0.036)	0.515 (0.039)	0.446 (0.028)	0.461 (0.039)
2014년	(1)	0.366	0.408	0.349	0.392	0.450	0.389	0.406
	(2)	0.403 (0.037)	0.459 (0.051)	0.373 (0.024)	0.445 (0.053)	0.515 (0.065)	0.431 (0.042)	0.463 (0.057)
2015년	(1)	0.344	0.392	0.335	0.375	0.432	0.371	0.388
	(2)	0.393 (0.049)	0.458 (0.066)	0.370 (0.035)	0.444 (0.069)	0.512 (0.080)	0.427 (0.056)	0.464 (0.076)
2016년	(1)	0.356	0.394	0.341	0.382	0.416	0.374	0.404
	(2)	0.408 (0.052)	0.462 (0.068)	0.379 (0.038)	0.453 (0.071)	0.500 (0.084)	0.431 (0.057)	0.486 (0.082)

주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다음으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때 6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는 0.018, 2014년 0.024, 2015년 0.035,

## 8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2016년 0.038로 나타났다. 70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지니계수를 0.036 완화시켰으며, 2014년 0.053, 2015년 0.069, 2016년 0.07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80대를 살펴보면,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지니계수를 0.039 완화시켰으며, 2014년 0.065, 2015년 0.080, 2016년 0.084로 나타났다. 곧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이러한 완화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지니계수를 0.028 완화하였다. 이후 2014년 0.042, 2015년 0.056, 2016년 0.05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읍면부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0.039의 지니계수를 완화했으며 2014년 0.057, 2015년 0.076, 2016년 0.082로 나타났다. 동부와 읍면부 모두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가 커졌으나 지니계수 완화효과는 읍면부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는 0.054였다. 이후 2014년 0.078, 2015년 0.100, 2016년에는 기초연금 지니계수 완화효과가 2015년과 동일한 0.100이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지니계수를 0.044 완화하였다. 이후 2014년 0.058, 2015년 0.073, 2016년 0.08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노인배우자 부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는 0.009였고 2014년 0.013, 2015년 0.018, 2016년에는 0.017로 나타났다.

자녀동거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지니계수를 0.012 완화시켰다. 이후 2014년에는 0.017, 2015년에는 0.027, 2016년에는 0.032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동거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는 0.004이며 기

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에는 0.008, 2015년에는 0.012, 2016년에는 0.01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가구의 경우 2013년 기초노령연금 0.014의 지니계수를 완화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0.022였으며, 2015년 0.027, 2016년에는 0.0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연금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4〉 2013~2016년 노인 가구특성별 지니계수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비노인 배우자 부부	자녀동거 노인 가구주	자녀동거 비노인 가구주	기타
2013년	(1)	0.418	0.437	0.348	0.328	0.287	0.340
	(2)	0.472 (0.054)	0.481 (0.044)	0.357 (0.009)	0.340 (0.012)	0.291 (0.004)	0.354 (0.014)
2014년	(1)	0.392	0.402	0.324	0.319	0.253	0.304
	(2)	0.470 (0.078)	0.460 (0.058)	0.337 (0.013)	0.336 (0.017)	0.261 (0.008)	0.326 (0.022)
2015년	(1)	0.362	0.368	0.288	0.324	0.258	0.288
	(2)	0.462 (0.100)	0.441 (0.073)	0.306 (0.018)	0.351 (0.027)	0.270 (0.012)	0.315 (0.027)
2016년	(1)	0.395	0.348	0.335	0.337	0.245	0.293
	(2)	0.495 (0.100)	0.428 (0.080)	0.352 (0.017)	0.369 (0.032)	0.255 (0.010)	0.323 (0.030)

주 (1)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는 처분가능소득에서 기초연금만 제외 시 기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 분기별 자료 및 연간자료)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특히 이를 살펴볼 때 빈곤 및 소득불평등 변화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으로 구분하고,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증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대빈곤율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절대빈곤율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 효과는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의 심도를 보여주는 빈곤갭 비율의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시행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곧 기초연금은 빈곤을 완화 효과보다 빈곤갭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빈곤을 완화 효과는 2016년에 감소하지만 빈곤갭 감소 효과는 2016년에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를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부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효과가 증가하다가 2016년에 이러한 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구 특성별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 효과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을 완화효과가 높았고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5년까지는 기초연금의 빈곤을 완화효과가 증가하다가

2016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부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기초연금 시행 이후 꾸준히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가구 특성별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에 경우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15년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빈곤갭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초연금의 빈곤갭·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및 빈곤율 완화 효과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2018년에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 급여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 변화 및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또한 다양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조정안에 따른 노인빈곤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향후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사전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변화가 어떤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노인의 상대·절대빈곤율 변화 및 빈곤갭 비율과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들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빈곤율 감소 효과 및 빈곤갭 비율과 지니계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노인가구의 특성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 및 지출 증가와 같은 가계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상대빈곤율 및 절대빈곤율, 빈곤갭 비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6년까지 기초 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 외에 정책적으로 제도의 목표 대상을 별도로 상정하지는 않으나 분석결과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빈곤갭,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사람들의 특성은 고연령대, 여성, 노인 단독가구 등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나, 빈곤 및 소득불평등 효율성이 높다는 점도 제시할 수 있겠다.

다만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2015년 이후에는 노인의 상대·절대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금 급여액 상향이나 급여 연동방법의 변화와 같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하고 있어 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빈곤율 감소보다는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더 큰 제도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제도의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금의 정책적 효과 평가 시 빈곤율 감소 효과보다는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와 제한점 및 한계도 제시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농어가 가구가 제외되어 전체 노인 및 노인 가구의 상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빈곤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강성호·최옥금(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 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2호: 43-71. 한국사회정책학회.
- 강성호·최옥금(2011).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24권 제1호: 95-117. 농촌경제연구원.
- 국민연금연구원(2015). 노인의 빈곤지표 변화분석: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분석자료. 내부자료.
- 임완섭·노대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이주미(2014). 「2014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완섭(2016).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36호: 82-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이주미(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옥금·한신실(2015). 「기초연금 급여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 최현수·여유진·김태완·임완섭·오미애·황남희·고제이·정해식·김재호·손병돈·이상봉·최옥금·진재현·천미경·김솔휘(2016),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5).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 2016년도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 (비공개)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기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비공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헌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자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 (비공개)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임란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요약보고서 2016-01	2016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7.6.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봉 외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단기과제 2016-01	단기연구과제1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연계방안)	오옥찬, 이재은	2017.4
단기과제 2016-02	단기연구과제2 (공단 내 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가치 창출 및 업무 활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 측모형 개발 방안)	유호선, 왕승현, 이은영	2017.4
단기과제 2016-03	단기연구과제3 (60세 이후 연령대별 필요 생활자금 조사, 노후준비 교육의 체계 및 주제 분류, 내연금 사이트 종합재무설계 내용 개선)	성혜영, 김아람	2017.4

##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봉,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물레이션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 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홍,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 개선 접근법	최기홍, 신성희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공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 략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 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현수, 유현경	2016.5.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 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	이재현	2016.5.
워킹페이퍼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 2014년도

연구보고서 2014-01	가입기간별 기초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II)	박성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2	공적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 연구	박주완, 한정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최기홍, 신승희	2014.12
연구보고서 2014-04	국민연금제도변수 중기 전망 연구	성명기, 최장훈	2014.12
연구보고서 2014-05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모의실험모형 연구	성명기	2014.12

연구보고서 2014-06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공분산 추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7	경제적불평등과 노후최저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상봉, 서대석	2015.3
연구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타 대체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연구 (비공개)	정문경, 최장훈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0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	권혁창, 정창률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1	독거노인의 생애노동이력과 이전소득 효과 연구	송현주, 성혜영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2	부도위험을 고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전략 에 관한연구	강대일, 조재호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3	고연령 사망률 추정과 미래 사망률 전망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최장훈,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4	시간변동성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5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한정림, 박주완	2015.3
연구보고서 2014-16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신경혜, 신승희	2015.3
연구보고서 2014-17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인(ESG)을 이용한 투자 전략 에 관한 연구	손경우, 주상철	2015.3
연구보고서 2014-18	ALM을 사용한 기금운용 통합관리방안(II)(비공개)	강대일, 김배호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1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사용자지수 산출에 관 한 연구	노상윤, 민성훈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손경우	2014.12
정책보고서 2014-03	공적연기금 리스크 관리체계의 국제비교	최영민, 박태영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4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선방안 연구	노상윤, 유승동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5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수, 김원식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6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7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비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선방안	박태영, 이정화	2015.3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안연구	정인영, 김경아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0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연구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1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조영은	2015.3
정책보고서 2014-12	연금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후준비 수준 제고 방안	성혜영, 송현주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3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지원방안연구	김경아, 김현수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 제도 가입확대방안	유호선, 박주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1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유호선, 김경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	이용하, 정인영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3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2013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KRelS)분석보고서-	송현주, 이은영 외	2015.3
연차보고서 2014-01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기금정책팀	2014.12
연차보고서 2014-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박성민, 신경혜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1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임양택	2014.12

용역보고서 2014-02	1. 독일연금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 북한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섭 이철수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진, 이정우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4	반납·추납 보험료 대여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 요도 조사(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승훈	2015.3
용역보고서 2014-0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김상호, 배준호 외	2015.6
워킹페이퍼 2014-01	연간 거시경제계량모형 개발	박무환	2015.3
연구자료 2014-01	2014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5.3
프로젝트 2014-01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단기과제 2014-01	단기과제 I	성혜영, 송현주 외	2015.6
단기과제 2014-02	단기과제 II	이용하, 유호선 외	2015.6



## 저자 약력

- 최 옥 금

성균관대학교 철학 ·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박사

前 한림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現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저서〉

- ▶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14.
- ▶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국민연금연구원. 2014.
- ▶ 노인 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4.
- ▶ 기초연금 급여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2015.
- ▶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국민연금연구원. 2016.
- ▶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6.
- ▶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6.

• 이 은 영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 석사

現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요 저서〉

- ▶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2014.
- ▶ 노인 가구의 경제불평등 구조 및 빈곤 완화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2015.
- ▶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설계 전략. 국민연금연구원. 2015.
- ▶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6.

프로젝트 2017-02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

2018년 4월 인쇄

2018년 4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8 / FAX : 063-715-6564

---

ISBN 978-89-6338-401-6